

행정학에서의 구조주의 접근방법 연구: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의식변화 및 그 구조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Structuralist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Saemaul Leaders in 1970s and its Transformation

이 광 석*, 이 정 락**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구조의 짜임새 |
| II. 행정학의 과학화와 구조주의 접근방법의
이용가능성 | IV. 새마을운동 지도자에 대한 구조주의 접근법
V. 결론 |

국 문 요 약

행정사(行政史)의 역할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의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구조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란 어떤 영역에서 대립되는 어떤 요소에 의해 구별이 되는 경우에(set of opposition) 관계들의 조직이 이루어지며,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이다. 교통신호등에서 빨강색이 '멈춤'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교통신호체계 내부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징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들보다 상징 그 자체가 더 실재적이며, 기표는 기의에 선행하고 기의를 결정한다.

더욱이 구조주의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부구조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K. Marx) 이론이나, 상부구조에 초점을 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등이 그것이다. (Dosse, 1998:61). 또 구조주의 접근방법에서 과학화는 알 수 있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변형원리나 매개변인을 탐구하게 되면 의식이나 이해를 넘어 무의식도 과학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있다. 즉 사회구조란 두 개 수준의 구조적 규칙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의식되는 표면적 구조인 표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정한 행동이나 의식을 생산하고 그 성격 한정하는 드러나지 않는 심층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장치가 매개변인이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시간강사

[논문심사일: 11월 15일, 논문수정일: 12월 05일, 게재확정일: 12월 10일]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술을 언표(言表)로 하여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참 뜻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 이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오기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동의할 수 있는 자료인 성공회대 자료로서 분석하였다.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방법을 활용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였는데,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욕망의 억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완전히 잠재되어 있었다. 그 욕망의 억압이 개인(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침잠(沈潛)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동기도 부여할 수 없었다. 달리 말해서 체념이 지배하는 숙명적 세계관이었다. 이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였다. 즉 동기부여 받은 개인의 욕망이 현재화(懸在化)되어 ‘잘 살아보세’이라는 구호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 집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문법은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즉 숙명적 세계관에서 발전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었다.

[주제어: 구조주의, 의식과 무의식, 심층구조와 표층구조, 매개변인과 변형, 새마을운동]

I. 서론

학문의 목적은 진리의 탐구로서 이 진리의 개념이 19세기 이후에는 과학과 동일시될 정도로 과학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행정학에서도 관심사 중의 하나는 행정학의 과학화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Henry, 1980).¹⁾ 그 열망이 행태주의에서는 행태만을 대상으로 과학화를 추구하여 성과와 아울러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한계는 현상학을 받아들인 후기행태주의의 대두로 이어졌다.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포괄한 후기행태주의는 진실보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류의 흐름이 되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 글은 의식과 아울러 무의식이나 심층구조의 탐구가 행정학의 접근에서 중요하다는 함축을 갖고 있다. 그것이 구조주의 접근법으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표층차원에서 시작하여 심층으로 탐색하는 그 방법론을 활용하면 유익할 것이다.

행정사(行政史)의 역할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어구(語句)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행정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이광석·권기석, 2016). 이 중에 현상학적 접근이나 해석학적 접근, 또 구조주의 접근법 등의 방법론은 주류의 방법론을 보완하는데 적절하다. 현상학에서는 의식의 연구

1) 예를 들면 김광웅(1983)에서는 행정학이라는 용어 대신 행정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를 진리의 샘플로 여기는데(김형효, 2008:50), 철학과 사회학에서는 많이 다루어져 왔고, 이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흐름들도 인근 학문에서는 주류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이 흐름은 개성기술적이고 의미 중심이므로, 행정학에서의 과제는 어떻게 이들을 발전시켜 행정학과와의 연계 속에서 의식의 연구나 이해의 연구를 과학화할까 하는 것이다.

또 과학화를 꾀한다면 “구조주의 과학”(Dosse, 1998:36; Levi-Strauss, 1963; Sturrock, 1979; Caws, 1988; 김형효, 2008)의 관점을 받아들여 무의식을 연구하는 구조주의 접근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화는 알 수 있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변형원리나 매개변인을 탐구하게 되면 의식이나 이해를 넘어 무의식도 과학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김형효, 2008).²⁾

구조주의는 이미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부구조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K. Marx) 이론이나, 상부구조에 초점을 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등이 그것이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란 어떤 영역에서 대립되는 어떤 요소에 의해 구별이 되는 경우에 (set of opposition) 관계들의 조직이 이루어지며,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이다.³⁾ 교통신호등에서 빨강색이 ‘멈춤’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교통신호체계 내부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징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들보다 상징 그 자체가 더 실재적이며, 기표는 기의에 선행하고 기의를 결정한다(Dosse, 1998:61). 또 구조주의는 실존적 개체를 비롯하여 그 근본이 사회적 관계의 함수로 보는 관점이므로(김형효, 2008:43), 사회적 구조 외부와 어떻게 차이가 나며 구조 속에서는 어떤 짜임새(mechanism)가 작동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⁴⁾

행정학의 관점에서는 구조주의를 일종의 접근방법으로 보면,⁵⁾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2) 주의할 점은 일상언어에서 실제로는 무의식을 의식이라고 (잘못) 사용되는 보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열등의식이니 집단주의이니 하는 용어들이 그것이다(이규태, 1985).

3) <http://synnic.com.ne.kr/structure1.htm>를 참조하라. 예를 들어 /곰/(bear)이 의미 있는 것은 /감/(persimmon)과의 모음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2원 대립에서부터 고차원의 대립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4) 전형적인 과학주의는 연역·법칙적 모델(deductive-nomological model: 이하 D-N model)로 대표되는데(Hempel, 1965, 1966; Salmon, 1990; Itkonen, 1975:382; 오용득, 2013), 이는 포괄법칙 모델(Covering Law Model)로 불리기도 한다. 물론 논리실증주의의 영향력이 후퇴한 이후 D-N 모델이 흠결이 있다고 판정이 났지만 과학적 설명의 이상형으로 간주되고 있다(Brown, 1977; 이광석·문유석, 2016). D-N 모델에서 험펠과 오펜하임은 과학적 설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설명항은 피설명항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여야 한다. 둘째로, 설명항은 피설명항을 연역해 내기 위하여 필수적인 일반법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설명항은 경험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Brown, 1977; Hempel, 1965; Halfpenny, 1982; 강신태, 1981). 물론 과학주의 모델을 비판하는 모델도 중시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쿤의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구성주의(홍성욱, 2005)이다.

구체적이라는 점이 그 장점이다. 그 장점을 활용하면 언표(言表)된 것을 통해 무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언어활동이 무의식의 조건, 즉 언어가 없으면 무의식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형효, 2008:103). 이를 새마을지도자의 언표를 통해 그 시대의 의식의 밑바탕에 있는 심층구조를 고찰하려 한다.

II. 행정학의 과학화와 구조주의 접근방법의 이용가능성

1. 행정학의 범위와 과학화의 개념

과학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⁶⁾ 그 핵심에는 진리는 존재하는가 하는 점과 과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다양한 과학의 관점을 진리의 존재와 도달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진리의 존재와 도달가능성

		진리의 존재	
		+	-
도달가능성	+	A	B
	-	C	D

출처: 엄정식(<http://tv.naver.com/v/1856448>)의 재정리

이 도표에서 A는 진리도 존재하며 도달도 가능하다는 견해로 논리실증주의가 대표적이다. B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도달은 가능하다는 견해로 쿤(T. Kuhn)이나 후기 비

5) 강신택(2002:19)은 접근방법을 연구방향을 정해주는 문제와 자료의 선정기준을 지칭한다고 하며, 김광웅(1983:151)은 어떤 시각에서 관심이 되는 대상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일컫는다고 한다. 유민봉(2015:18)에 따르면 접근방법이란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도구 또는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지식체조의 공정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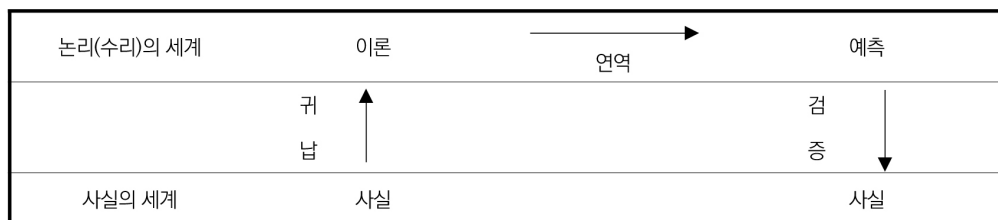
6) ‘과학적’이라는 개념도 많이 변화했다.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패러다임이론이다. 이미 고전이 된 쿤(T. Kuhn)의 이론 이전에는 지식의 누적적인 축적과 일관된 원리로 보았으나, 쿤의 이론 이후의 이론은 과학의 발전은 오랜 세월을 걸친 연구의 누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를 통한 과학혁명이라고 주장한다(Kuhn, 1970). 즉 과학혁명의 구조를 “과학혁명→새로운 정상과학(패러다임의 형성)→정상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성의 출현으로 인한 위기→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과학혁명”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과학적’이라는 개념은 앞서 본문의 행정학의 인식론에서 전개한 해석학이나 현상학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 또한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인다. 해석학이란 의미론에 근거를 둔 학문으로(김동운, 2009) 과학적 구조를 의미로 보완시킬 수 있다.

트젠슈타인(Later Wittgenstein)이 여기에 속한다. C는 진리는 존재하지만 도달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소크라테스(Socrates)와 포퍼(K. Popper)의 후기실증주의(또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태도이며, D는 진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도달도 불가능하다는 소피스트의 견해이다.

행정학에서도 이를 변용할 수 있다. 행정학을 A라는 전제에 서면 행정과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고 검증이나 귀납적 방법에 의존할 것이다. 한편 C의 입장은 진정한 과학이란 반증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학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연역적 방법으로 논의될 것이다(이광석·문유석, 2016; 윤광호, 2002; Popper, 1972).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 시각인 B는 사회의 합의에 우선가치를 두는 패러다임 이론이다.⁷⁾ 현재의 행정학은 이러한 토론보다는 처방지향적인 행정학이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지향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에 대해 논리적 켈컬러스(logical calculus)나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학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정해창, 1987:307). 즉 행정학을 한 단계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 켈컬러스에 의존하여야 하는데(강신태, 1981; 김선하, 2004), 이를 탐구하는 작업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은 이를 구조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과학의 과정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귀납의 방법에 의해 이론으로 재구성한다. 이 이론은 예측가능하게 해 주며, 이 예측은 검증을 통과함으로써 정당한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1>이다.

<그림 1> 과학의 과정



출처: Kemeny(1959:86)

7) 가장 대표적으로 N. Henry(1980)을 들 수 있다. 덧붙여 행정과학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지는 않았다(김광웅, 1975; 1983). 행정학이 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실증주의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제기는 새겨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검증의 원리를 인식적 의미나 이해를 나타내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한다면(정해창, 1987:236), 처방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행정학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과학의 시초는 사실에 있다. 문제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사실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행정은 사실에 기초하여 구성되지만⁸⁾ 그 사실의 일부가 행정학이 다루는 행정학적 사실(administrative fact)이 된다(이광석·권기석, 2016; Ongaro, 2017). 행정학적 사실의 한계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김형효, 2008:53). 즉 행정주체 내부의 관계든 행정주체와 행정의 대상과의 관계든 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서 일반적으로 수많은 개개의 사실이 존재하고, 행정의 영역에서도 많은 행정이 다루는 사실에 기초하지만 이들 모두가 행정학적 사실은 아니다. 행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실 중에서 행정학의 관점에서 포착하여 이론 구성에 이바지하는 사실이 행정학적 사실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 H. Carr)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느 영역이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fact)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는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에서 역사가가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할 때에 역사적 사실이 된다고 주장한다(Carr, 1982).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현상이란 개인의 의식을 초월하는 집단무의식으로 이해하였다(Coser, 1971: 29-136; 김형효, 2008:117). 이들의 주장을 기초로 하면 이론구성과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정학자가 사실이라고 끄집어 낼 때에 행정학적 사실이 된다는 함축이다.

따라서 사실과 행정학적 사실은 다른 것이므로 그 초점은 행정학적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행정현상과 관련이 있는 행태, 의식 및 무의식으로 정의하고 이후 좀 더 자세히 서술한다.

행정학적 사실을 행정학의 관점에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 행정학적 명제가 되고 이 행정학적 명제로 구성된 것이 행정학의 이론이 되므로 이는 행정학적 사실에서 발생하고 발전된다고 본다(Kuhn, 1979: viii). 이를 위해 선학(先學)들의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도입할 수 있다.⁹⁾ 이렇게 되면 행정학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행정에 관한 분석명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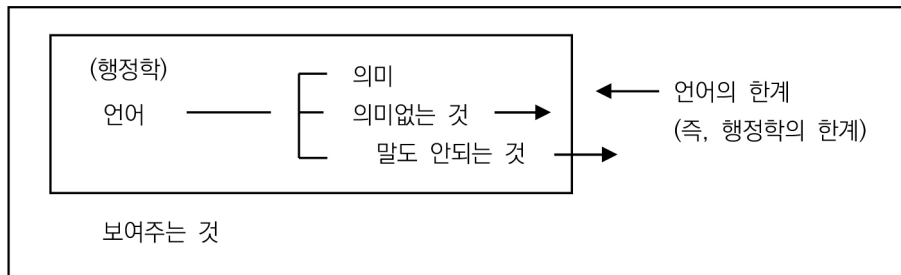
8)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이다”라는 명제로 표현된다(Wittgenstein, 1921). 여기서 세계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상은 사물의 관계 맺음에서 유래하고 이를 다루는 것이 논리학이다.

9) 분석명제는 주어(subject) 안에 이미 서술어(predicate)가 내재하는 것으로 사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고 이성애 의존함을 의미한다. 동일물을 표시하는 A=A라는 명제는 분석 명제의 특별한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정의(定義) 규정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종합명제는 새로운 지식의 첨가에 의해 가능하며 이는 경험에 의존한다. 물론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범주화는 엄밀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Quine, 1961). 이 구분은 Winch(1958)가 제시한 개념적 질문에 대한 응답과 경험적 질문에 대한 응답의 구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구분은 사회과학에서는 유용한 분류로 판단된다.

종합명제의 총체”라고 정의된다(이광석·문유석, 2016).

이 시각에서 실증주의와 주관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사실과 행정학적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논리적 원자론에 기초하여 그림이론의 관점으로 행정을 보게 되는 견해가 전자의 관점이다(Fann, 1969). 반면에 사실과 행정학적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고 행정학적 사실은 주관에서부터 구성된다는 쿤(T. Kuhn)과 플렉(L. Fleck)의 견해는 후자를 지지한다(Kuhn, 1970; Fleck, 1979). 따라서 먼저 행정학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Wittgenstein(1921)에서 전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의 세계는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여주는 것과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대립되며,¹⁰⁾ 그것은 언어의 한계에 의해 제약된다. 이를 행정학의 한계로 대치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가 된다.

<그림 2> 행정학의 한계



출처: Fann (1989:24) 수정¹¹⁾

즉 행정학의 한계는 의미를 가진 것이나 의미없는 것(예컨대 상징이나 기호 등)은 포함되나, 말도 안 되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은 그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범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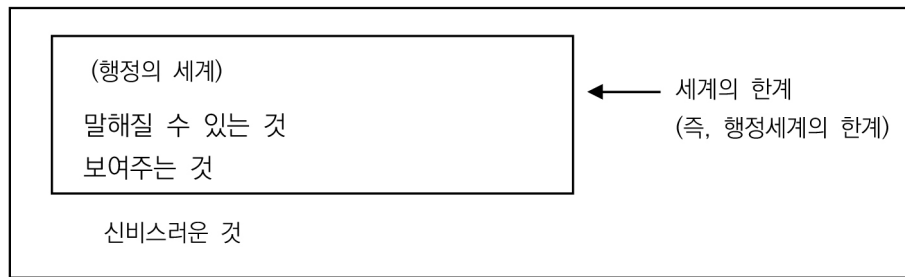
위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행정학이 언어체계라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는 (후술하는 행정과 관련시키면) 언어게임의 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이와는 다르게 특징지을 수 있다. 인간의 다양한 삶 중에서 그 하나가 행정이라는 범주로 파악되고 행정현상

10) 즉 실체란 doing이고, 이론체계란 saying이나 discourse로 정의하는 바를 따른다(Garner, 1996).

11) <그림 2>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의 3분론이다(Fann, 1969:23-24). 즉 ‘의미있는’ 것과 함께 ‘의미없는(senseless)’ 것 및 ‘말도 안되는(nonsensical)’ 것이 그것이다. 언어의 한계 안에서 사물에 대해 말할 때를 의미있다고 하고, 언어의 한계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없는(무의미한:senseless) 것으로 보고 이것이 바로 분석명제이다. 한편 언어의 한계 너머 놓인 어떤 것을 말할 때를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보기는 윤리·도덕이나 미학, 종교 등이다. 윤리·도덕이나 미학, 종교 등을 범위 밖으로 밀어낸 것은 논리실증주의의 특징이자 한계로 보인다.

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은 삶의 양식(form of life) 중의 하나이다(Wittgenstein, 1953; Kishik, 2008). 이 삶의 양식은 언어게임(language game)으로 나타나고(이규호, 2005a; 2005b; 박병철, 2014; Hertzberg, 2010), 언어게임의 특징은 규칙의 존재이다(Winch, 1958; Long, 2010; 이영철, 2016). 물론 행정의 본질을 전통적으로는 관리작용으로 보아 왔고, 최근에는 정책결정과 구체화로 보거나(박동서, 2005), 베버(Weber, 1968)에서처럼 지배(Herrschaft)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이 관점에 따르면 행정의 기본은 생활양식과 언어게임 및 규칙따르기(rule-following)로 요약되고,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양식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定義)된다. 여기에도 그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3>이 된다.

<그림 3> 행정의 한계



출처: Fann (1989:24) 수정¹²⁾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행정의 세계는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다.¹³⁾ 여기서 행정학과 행정은 차이가 난다. 반면에 행정의 세계는 신비스러운 것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방법론의 관점으로 전환해 본다. 방법론의 여러 흐름 중에서 오늘날 주류의 자리를 차지한 행태주의 접근법을 다른 흐름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학의 인식론을 visible과 knowable이라는 두 기준과 그에 따른 범주를 아래와 같은 도표로 만들 수 있다. <표 2>이 그에 따라 제시된 도표이다.

12) <그림 3>의 신비스러운 것의 원어는 'The Mystical'이고, 이는 Wittgenstein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를 변용하여 신비스러운 것은 행정의 영역 밖으로 보았다.

13)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의 고유한 의도(Wittgenstein, 1921)와는 달리 보여주는 것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이해하여 행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표 2> 행정학의 인식론

		knowable	
		+	-
visible	+	A	B
	-	C	D

위 표에서 A는 보일 수도 있고 따라서 알 수도 있는 것, 즉 행태(behavior)이며,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흐름이 행태주의 접근법이다. 이 흐름은 객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객관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오늘날의 주류로 자리잡았다.¹⁴⁾ B는 보일 수는 있으나 알 수는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흐름으로,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거나 해독할 수 없었던 것들에 도달할 수 있는 해석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Dosse, 1997:121). C는 보이지는 않으나 알 수는 있는 것, 즉 의식(consciousness)이며,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흐름이 현상학적 접근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은 주관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D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 즉 구조(structure)이며,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흐름이 구조주의 접근법이다. 구조주의는 데카르트 이후 주체·객체로 나뉜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한다(박형준, 1992). 이를 재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행정학의 인식론적 접근방법

		knowable	
		+	-
visible	+	행태주의 접근법	해석학적 접근법
	-	현상학적 접근법	구조주의 접근법

2. 사유체계로서 구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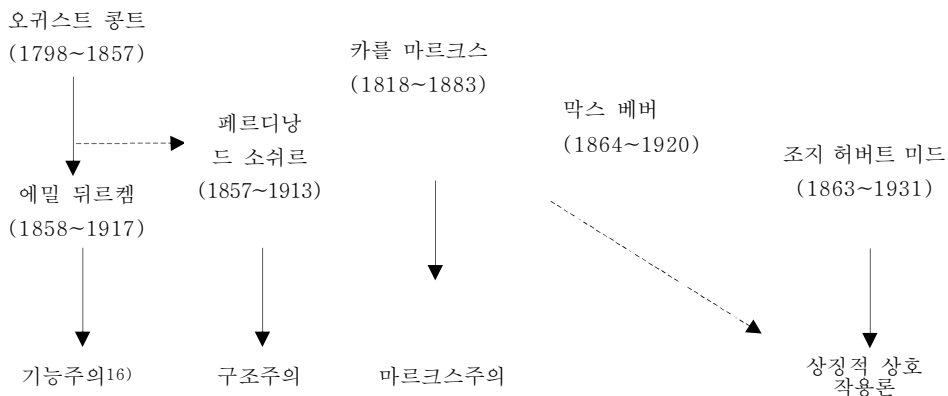
행정작용 그 자체에서 행정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작용과의 차이에서 행정작용이 의미를 나타낸다는 관점이 구조주의로 주체의 소멸과 반인간주의 철학이다.

14) 행태주의는 행동(overt behavior)과 의식 사이의 굴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 나타난 행동을 관찰하면 그 행동을 낳게 한 의식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상학이나 해석학은 행동과 의식 사이의 굴절을 인정한다. 현상학은 그 굴절을 인정하므로 의식이라는 독자 영역이 성립한다. 특히 해석학은 그 굴절에 밑바탕을 두어 보편적인 일반화를 거부하는 흐름이다. 한편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연계 방식에 대해 현상학은 무의식에 대해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지만 구조주의는 의식은 구조에 얽매인다는 의식의 구조구속성을 주장한다. 여기서 이들이 각자 독립의 길을 걸어감을 알 수 있다.

21세기의 행정에 적용되어야만 할 사명을 행정 연구자에게 부여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행정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무의식화 되어 있는 행정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례들은 관존민비(官尊民卑)나 권위적 행정문화와 같은 것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풍토나 ‘우리 의식(we-feeling)’과 같은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특히 주어진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의식을 통해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광웅, 1983; 김옥동, 1997).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 대한 고찰은 구조주의의 사유체계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구조주의는 어떤 대상들 가운데에 내재하고 있는 관계의 체계를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화(調和)에 대한 탐구이다(박옥출, 1977:14). 즉 다양한 현상 속에서 그 다양성의 배후에 있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이 관계의 체계를 하나의 언어로 환원시켜 분석하는 작업이다(박옥출, 1977:15).¹⁵⁾ 이 작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지면상 그 연구의 역사를 간단히 도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구조주의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의 전개



주) 실선은 직접적 영향을, 점선은 간접적 영향을 나타낸다.
출처: Giddens(1994:651)

15) 구조주의에 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전개한 많은 좋은 책들이 있다. 전체를 조감하기에는 Caws(1988), Dosse(1997), Frank(1989), Glucksmann(1974), Harland(1988), Kurzweil(1980), Lash(1991), Sturrock(1979), Seung(1982) 등이 유용한 책들이다.

16) 이를 구조기능주의로 통칭되기도 하지만(강신탐, 2002), 대체로는 Johnson(1975)[한글번역판 박영신(1980)]에서나 Giddens(1993)[한글번역판 김미숙 외(1994:646)]에서 보듯이 기능주의로 서로 나누어 이해하여야 함이 더 나을 듯하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란 한 단위와 다른 단위와의 관계(the relationship of a unit to other unit)로 심층적 실체라고 인식하여 ‘진정한 현실’로 간주한다(박형준, 1992). 따라서 ‘의식적인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것의 우위’ 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인식을 넘어선다(박형준, 1992). 다만 이와 밀접히 연결되지만 구별하여야 할 흐름이 위 <그림 4>에서 보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이다. 기능주의에서 기능이란 어떤 구조가 다른 구조들이 유지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으로(Johnson, 1975:18),¹⁷⁾ 체계의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패턴을 의미한다(박형준, 1992). 따라서 기능주의는 눈에 보이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현상의 차원에 머무른다(Dosse, 1998:40). 이런 관점에서 구조주의는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즉 하나의 사회가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Dosse, 1997:274). 더욱이 구조주의가 사회의 구성에서 차이를 통한 공간화의 유의미성을 강조하고, 시간적 차원을 분석의 핵심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미있는 사회변동이란 패러다임 차원에서 구조의 변화라고 명확히 하였다. 이 관점에서도 구조주의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박형준, 1992).¹⁸⁾

구조주의와 다른 관점에서 있지만 상호 관련이 있는 접근법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해에 바탕을 둔 심리철학과도 연계될 수도 있다(강명윤, 2007a; 2007b; 박순영, 2012). 또 구조주의와 정반대로 의식을 중심으로 한 사유체계가 앞서 언급한 현상학인데, 이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측면에서는 칸트(I. Kant)의 견해와도 맞물리며, 지향성에 기초한 노에시스 의식(noetic consciousness)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한 이론으로 주체 중심의 인간주의 철학이다(강명윤, 2007a).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구조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 해석학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은 후술하는 T-G 모델로서 해석하면 T-G 모델을 은유(metaphor)로 삼고 사회체계의 구조적 유형을 서술하고 설명하려는 것이다(김경동, 1981). 이어서 구조주의 접근법에서 보는 구조의 짜임새를 논의하기로 한다.

17) 원문은 the contribution that a structure makes to the maintenance of the other structures이다(Johnson, 1975:18).

18) 더욱이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를 행위나 의식의 내생적 요인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체-객체의 이원론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과의 차이가 있고 그의 이론적 기반은 구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Wittgenstein, 1953). 행정학에서도 구조주의나 언어게임의 시각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에 관해서는 박형준(1992)를 참조하라.

III. 구조의 짜임새

1.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

<표 3>에서 보듯이 의식은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연구의 핵심 대상이지만, 구조주의 접근법에서는 의식의 분석을 포기하고 무의식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¹⁹⁾ 그러나 그 접근은 언어의 분석을 통해 무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의식적 측면이나 행동의 측면을 생성하기에 행정학에서도 유용하다. 즉 언어활동은 무의식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김형효, 2008:51). 대체로 언어표현 이전의 단계에서의 의식에 초점을 두면 새로운 삶의 영역을 드러내 보인다(오교성, 2000). 이 방법에 따르면 인간 내면의 의식구조를 상위와 하위로 구분하여, 정립된 이성의 경지인 언어표현의 단계(speech level)와 정돈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의 경지인 언어표현 이전의 단계(pre-speech level)로 나누고 언어표현을 기초로 언어표현 이전의 무의식을 탐구한다.²⁰⁾

무의식의 분석은 대체로 두 범주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적 무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에서의 무의식 분석이다.²¹⁾ 무의식의 분석에서 핵심은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²²⁾ 욕망 때문에 인간은 억압받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이라는 의미는 욕망이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시하게 되고, 이 억압은 의식차원의 도덕적 죄의식보다 구조적으로 선행한다(김형효, 2008:51).

심리학적 무의식 분석은 윌리엄 제임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사람의 정신 속에

19) 이를 데카르트가 주장한 '나는 생각한다'에 대응하여 라캉은 '나는 생각되어진다'라고 표현한다. 전자는 주체의 확고한 의식 위에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철학인데 비해, 후자는 의식의 작용이 인식의 근본적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인간이 욕망의 존재임을 부각시킨다(김형효, 2008:50-51). 의식체로의 접근은 현상학적 환원에 힘입은 방법인데 이는 현상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Schutz(1941:445-446) 및 Gurwitsch(1964) 등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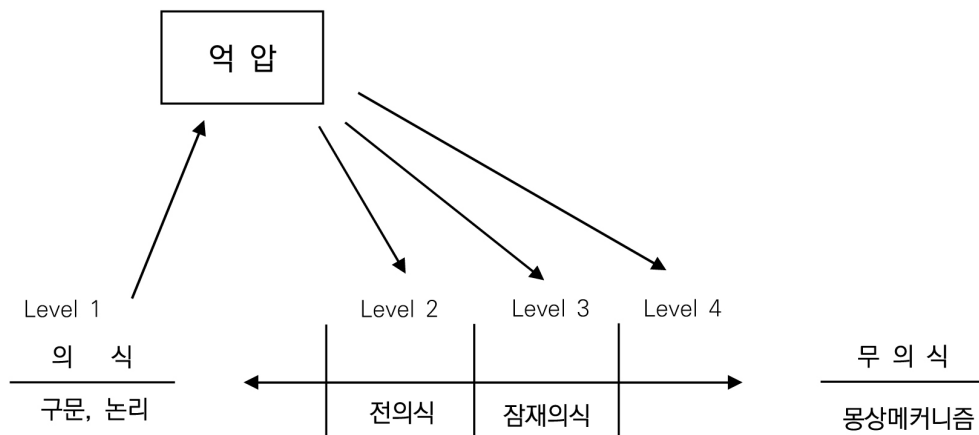
20) 물론 이 기술은 description of 와 description on을 포함한다(Zaner and Engelhardt, 1973; 신충식 외, 2010).

21) 이는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분석과 관련이 있다(Althusser, 1976).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K. Marx) 철학은 1845년의 「독일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전의 관심사는 인간의 소외였고, 그 이후는 물주체적 반인간주의 이념을 지닌 구조주의로 파악된다고 한다. 서구에서 스탈린주의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재생시키기 위해 인간 소외에 천착하여 인간주의로 재편성된 학파가 프랑크푸르트학파이고, 알튀세르는 구조주의로 파악하고 있다(김형효, 2008:71).

22) 이를 좀 더 천착한 철학자들이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이다. 그들은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이라는 책에서 욕망의 뿌리를 의미하는 리좀(rhiz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욕망을 잘 분석하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Rhizome>(2017.10.26)).

서 생각과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을 심리적 존재로 파악하였다(Myers, 1986:54-72). 즉 개인의 마음에 속하는 의식은 가변성, 연속성, 선택성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의식을 인간 경험을 지각하는 장소로 보고 있다(Humphrey, 1954:7-8)[이광석(2014)에서 재인용]. 그 이후 의식에 관한 연구는 프로이트학과 결합하여 더 풍요롭게 발전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이란 의식, 전의식(preconsciousness), 잠재의식(subconsciousness), 무의식(unconsciousness)이라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Hoffman, 1959; Levi-Strauss, 1963:281-283; 박호완 외, 2004), 이 잠재의식의 인정 여부에서 프로이트 학파와 차이가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무의식(unconsciousness)과 하의식(subconsciousness)을 구분한다(Levi-Strauss, 1963; 김형효, 2008:45).²³⁾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Hoffman, 1959:129-131).

<그림 5> 의식의 층과 억압



주1) 여기서 몽상(dream-mechanism)은 합리적·과학적 사고보다는 직관, 또는 직접적 체험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유하는 의식 작용으로 문학적 용어이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주2) 앞서 설명한 의식의 선택성에서, 즉 그 대상의 어떤 일부분에 흥미를 지니고서 다른 것을 무시하게 된다(木田 외, 1994).

출처: Hoffman (1959:130)(이광석(2014)에서 재인용)

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생각은 의식이 무의식에서부터 보내져 와서 전의식(preconsciousness)에 의해 편집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편집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의식되지 않도록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무의식적 의사결정 그리고 의식에 의한 합리화의 흐름이 오직 비정상적이거나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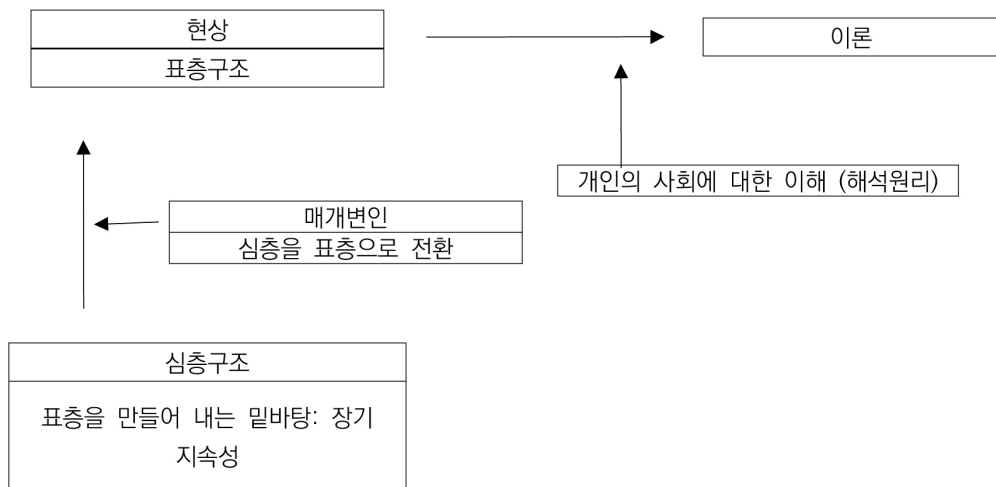
23) 따라서 본문의 전의식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하의식과 유사한 듯하다.

가지고 있는 사고에만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즉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무의식이 어떤 계기로 의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일상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Schank, 2002)[이광석(2014)에서 재인용]. 이를 구조주의 접근법에 따르면 사람들의 신념이나 말이나 행동은 무의식의 구조에서 생성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의 틀

구조주의는 그 흐름 안에서도 다양한 흐름이 있다(Lechte, 1995). 이 글의 전개와 부합되는 분석모델은 변형·생성 모델(transformational-generative model: 이하 T-G model)로 부르는 촘스키(N. Chomsky)의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은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하고, 개별성과 보편성 모두에 대한 매우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강명윤, 2007a; Magee, 1978). 이를 사회 연구에 적용하면 사회구조란 두 개 수준의 구조적 규칙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행동들의 성격이 의식되는 표면적 구조인 표층(surface structure)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행동들을 생성하게 하는 되고 그 성격을 한정하는 드러나지 않는 심층(deep structure)이다(이광석·문유석, 2016). 이를 분석의 틀로 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6>이 된다.

<그림 6> 분석의 틀



출처: Chomsky(1957;1966) 수정

이 모델을 보면 구조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구조주의에 의하면 기저에 심층구조(deep structure)가 있는데, 심층구조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김응중, 2006:38; Braudel, 1997; 2008), 표층을 창출하는 밑바탕이다. 그 위에 표층(surface structure)이 있다.²⁴⁾ 이 두 구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매개변인 즉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표층에 나타난 행위는 그 의미의 연원이 심층에 있고 변형과정을 통해 표층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의 틀은 인간의 내재적인 측면으로 더 깊이 심층을 설정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표층의 잠재 형태(latent form)가 되고, 그 집합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체 또는 생활세계라는 문화적 문법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이다(polkinghorne, 1983:149; 박순영, 2012; 이광석 외, 2017).²⁵⁾ 즉 개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욕망의 기저(基底)로 작용하는데 비해, 집합적으로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면서 공동의 인간 행동방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 낯설음을 해석할 수 있는 관련체계이다(Wittgenstein, 1953, No.123, S.49; 이규호, 2005b:147-148). 이는 행동이나 의식을 무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기제로 작용한다.

3. 구조주의 접근법과 매개변인

구조주의 접근법이란 실체의 발견보다는 변별적 자질(distinct feature)과 같은 관계의 발견에 중점을 둔다. 그 관계는 현상은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서 유래하며 따라서 진정한 실체는 심층이라는 것이다.²⁶⁾ 따라서 현상의 차이를 추출해 내고 그렇게 만드는 심층의 구조를 밝히고 현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즉 매개변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핵심 이슈는 “사실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는 관점과 “사실이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Do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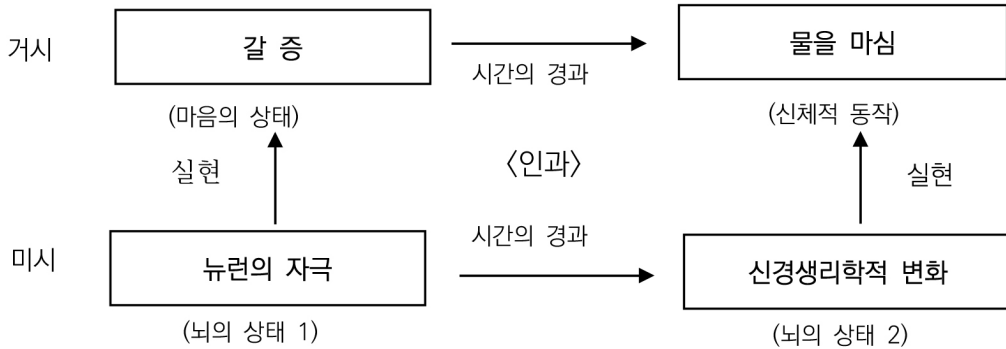
24) 역사학에서 논의되는 유사한 모델로 브로델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심층-표층 사이에 ‘콩중튀르’가 있다. 이것은 상승이나 하강과 같은 국면을 지칭한다(김응중, 2006). 이 모델의 관점은 “인간은 구조와 국면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수인에 불과하다. 사건은 덧없고 개인은 무력하다. 사건과 개인은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사건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김응중, 2006:113)(이광석(2014)에서 재인용).

25) 문화적 문법이란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의식과 행위의 규칙들로 구성원들이 내면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정수복, 2007:74-75)(이광석(2014)에서 재인용).

26)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또한 구조를 통해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거나 해독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의 이론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심층구조란 지배(Herrschaft: Domination or Authority)이고 표층구조는 자본주의와 합리화로 귀착된다(Mommsen, 1974; 금종우·전남석, 1981: 역자의 말).

1998:58). 그 중재하는 장치가 매개변인이다. 즉 매개변인이란 무의식(또는 의식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것을 끌어 올리는 기능을 하는 바를 말한다. 이를 갈증이라는 심리상태와 물을 마신다는 행위를 사례로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7>이다.

<그림 7> 매개변인



출처: 이승중(1999:231)

구조주의 접근법에서 knowable하지도 않고 visible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과학성을 확보하는가? 구조주의 접근법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기법은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이다(이정민·배영남, 1990). 이항대립이란 정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값의 대립으로, 자질을 부여하면 어떤 자질을 함유하고 있으면 긍정 값(a positive value, [+])을, 그렇지 않으면 부정 값(a negative value, [-])을 표시하여 그 특징을 명백히 하는 방법이다.²⁷⁾ 이를 건설↔파괴, 전쟁↔평화 등과 같이 2원적 기준으로 자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단일 자질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A라는 자질에 [+A]를 부여하고 그 반대는 [-A]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 하위분류에는 한편에서는 [+B]를,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한편에는 [-B]를 할당하고, 그 중에서 [+B]가 선택되었다면 그 하위분류에는 같은 방식으로 [±C]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이정민·배영남, 1990). 이를 이용하여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의식구조를 밝힐 것이다.

27) https://en.wikipedia.org/wiki/Distinctive_feature를 참조하라.

IV. 새마을운동 지도자에 대한 구조주의 접근법

1. 새마을운동의 짜임

구조주의 접근법의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은 어떤 짜임새인가? 새마을운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류와 범주화는 통시적(diachronic) 기준과 공시적(synchronic) 기준(Dosse, 1998)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연구대상인 새마을운동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서 연구대상을 세분화·구체화 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아래 <표 4>와 같이 된다.

<표 4> 연구대상의 분류와 범주화

		통시적 기준	
		1970년대	2016년 or 2017년
공시적 기준	국내	A	B
	해외	C	D

여기서 A는 1970년대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로 새마을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²⁸⁾ 반면 B는 글로벌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지만, 한국 국내에서 2016년이나 2017년에 해당하는 것은 김장담그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C는 새마을국제개발협력에 해당하며, D는 같은 논리로 국외에서 2016년이나 2017년에 해당하는 것은 새마을공적개발원조라고 할 수 있다(이정주·이정락, 2016). 이 글에서는 A의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새마을지도자의 녹취록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통해 중심위드를 범주화하고 구조화하고자 한다.²⁹⁾

28) 새마을운동을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관점에서 통시적 기준으로 구분하면 새마을 1.0과 새마을 2.0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새마을 1.0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시기로 새마을운동의 원형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성공모델을 배우고자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 2.0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공여국으로 전환되어 새마을ODA를 수단으로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전개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새마을운동의 연구영역은 <표 3>를 기준으로 하여 A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D인 새마을ODA가 중요한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D의 영역의 경우 최외출(2016)은 새마을개발로 명명하고 있다.

29)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새마을지도자의 의식구조 연구는 최초의 시도로서도 의미를 지닌다(이정락, 2017). 분석과정에는 녹취록을 텍스트파일로 전환하여 분석프로그램인 넷마이너4.3을 활용하여 연결중심성 분석과 LDA토픽모델링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결중심성 분석을 위해 전처리과정으로 텍스트파일에서 필요한 형태소로 일반명사를 지정하고 이외의 품사와 영어, 숫자,

2. 새마을지도자의 텍스트마이닝 분석

1)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 추출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의 의식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표층으로 나타난 그들의 구술을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하 LDA) 토픽 모델링 기법(techniqu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의 분석의 틀에 기초하면 표층에서 심층으로, 또 그 심층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이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오기에, 객관성(또는 상호주관성)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동의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여 온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4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구술한 녹취록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녹취록은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한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남성지도자 14명, 여성지도자 6명으로 되어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남성지도자와 여성지도자의 녹취록에서 추출한 문장과 워드는 <표 5>와 같다.

<표 5> 추출워드 및 TF-IDF

구 분	남성지도자	여성지도자	계
녹취 인원	14	6	20
생성문서 수	14	6	20
추출문장 수	13,880	4,262	18,142
추출최종워드 수	38,250	14,071	52,321
Words-TF-IDF	9,489	3,454	12,943

2) 연결중심성 분석

새마을지도자의 녹취록을 대상으로 한 연결중심성 분석은 새마을지도자의 관점에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핵심어를 구조화할 수 있다. 더욱이 그 핵심요소가 어떠

지명, 인명 등을 삭제어로 등록하여 사전작업을 거쳐 최종워드52,321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문서에서 나타나는 워드의 빈도수가 아닌 워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는 TF-IDF를 추출하였다. 워드의 중요도는 한 문장에서 워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추출된 워드에 가중치를 두며 텍스트마이닝에서는 TF-IDF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연결중심성 분석과 토픽모델링분석을 위한 워드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어빈도(word frequency)는 1로 설정하고, 단어 간 인접관계 설정인 윈도우 사이즈(window size)는 3으로 설정하였으며, 워드의 방향설정은 제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 특징과 차이를 가지며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결중심워드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영역, 활동내용, 인적네트워크 및 의식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주민의 지도자로서 농사와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사업에 주력하였으며 정부기관과 공무원과 마을과 주민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결중심워드는 주로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인적요소(부녀회장, 공무원, 어른), 공간적 요소(마을, 정부, 국가, 농촌, 학교), 사업의 내용(농사, 사업,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 소득증대를 목표로 각종 지원과 지도 및 연수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결중심워드의 분석결과를 남·여 지도자와의 비교작업을 통해서 보면, 여성새마을지도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새마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주로 마을의 영역 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또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마을 내의 인적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공간적 영역 또한 가정, 학교, 회관 등에 기반하여 새마을부녀회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농협을 통해 가정 내의 저축을 통해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구판장의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지도자는 마을과 지방정부와 매개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범주는 새마을사업의 내용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여성지도자의 공간적 범주인 가정과 마을에서 각기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도 남·여 지도자의 역할과 개념정의의 척도로도 유용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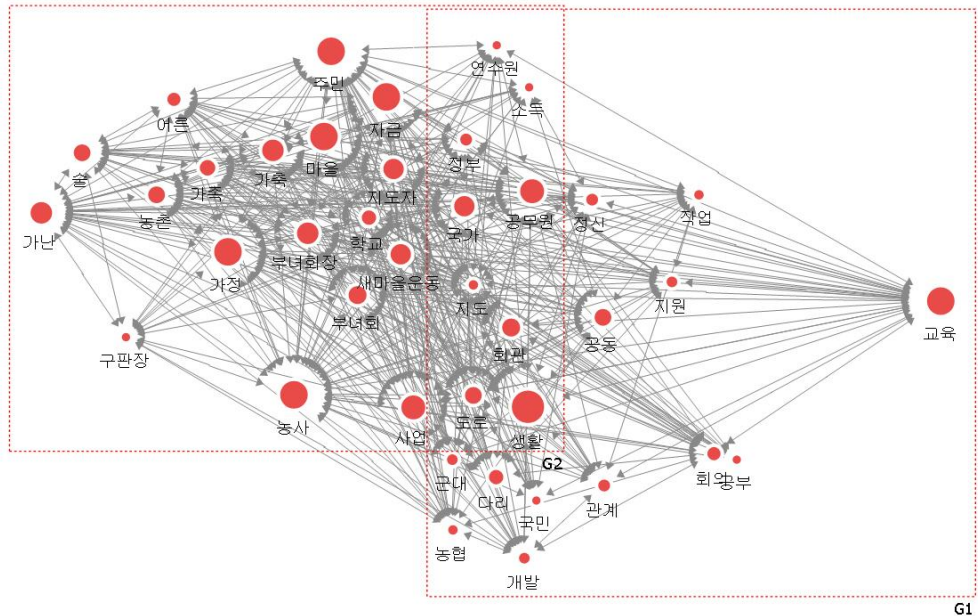
3) LDA 토픽모델링 분석

연결중심워드를 기반으로 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구조주의 접근법이 채택하는 기법인 이항대립의 관점에서 기술하면 <그림 8>의 블록모델로 시각화할 수 있다. 또 <표 6>과 같이 논의를 확장하여 이항대립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용하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상징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상징을 조직화하면 뚜렷한 기하학적 대칭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술/쌀의 대립은 소비적/생산적 관계의 함축으로 상징화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매개항으로 기능한다. 매개항이란 양의적(兩義的) 성격을 지녀서 이항대립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신인철, 2009).³⁰⁾ 개

30) 그 보기를 성서의 해석에서 찾으면,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속성을 가져서 이항대립을 매개한다.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집트의 이항대립에서 광야는 매개항으로 존재한다(신인철, 2009).

인/마을은 이항대립 관계이고, 가족이나 가정은 양의적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주민은 이항대립 관계이고, 지도자는 양의적 성격이며, 지원/자립의 계열관계에서 경제생활도 그러하다. 그 전체적 윤곽을 보인 것이 <그림 8>이다.

<그림 8> 이항대립의 윤곽



<그림 8>을 토픽 키워드와 이항대립을 더 선명하게 계열관계를 구성한 것이 <표 6>이다.

<표 6> 토픽 키워드와 이항대립

토픽 키워드	+	양의적	-
1 st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마을	가정	개인
2 nd 개발잠재력의 현재화(懸在化)	지원	경제생활	자립
3 rd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의욕	공무원	지도자	주민
4 th 과학적 영농	농사	사업	교육
5 th 생산적인 생활기풍	쌀	소득	술
6 th 계획적인 노력	지도(lead)	계획	농촌
7 th 체념의 극복	저축	농협	가난
8 th 협동적 전체활동	추진사업	개선운동	개간
이하 생략			

주) 토픽 키워드는 내부부(1980)을 참조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남성지도자와 여성지도자로 나누어 보면, 남성지도자 연결중심위드에는 자립을 향한 의지로 정신적 측면에는 규약과 물질적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을 지도해주며, 도박이나 술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없애서 소득의 증대를 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지도자 연결중심위드에는 공동성(共同性)을 향한 의지로, 정신적 측면에는 여성 교육에 새로운 기여를 하였고 물질적 측면에서는 가족계획과 같은 지원을 해 주었다. 또 부녀회와 구판장을 이용하였으며, 미풍양속의 보존을 통한 긍정적 요소 늘리기가 특징이며 가족을 위한 저축을 꾀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표 7>과 같은 자질을 갖는다.

<표 7> 남성지도자와 여성지도자의 연결중심위드

남성지도자 연결중심위드						
대상	자립	지원		부정적 요소 없애기		소득
		정신적 측면	물질적 측면	도박	술	
		규약	사업			
마을	+	+	+	-	-	+
여성지도자 연결중심위드						
대상	공동성 (共同性)	지원		긍정적 요소 늘리기		저축
		정신적 측면	물질적 측면	부녀회와 구판장	미풍양속	
		교육	가족계획			
가정	+	+	+	+	+	+

3. LDA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와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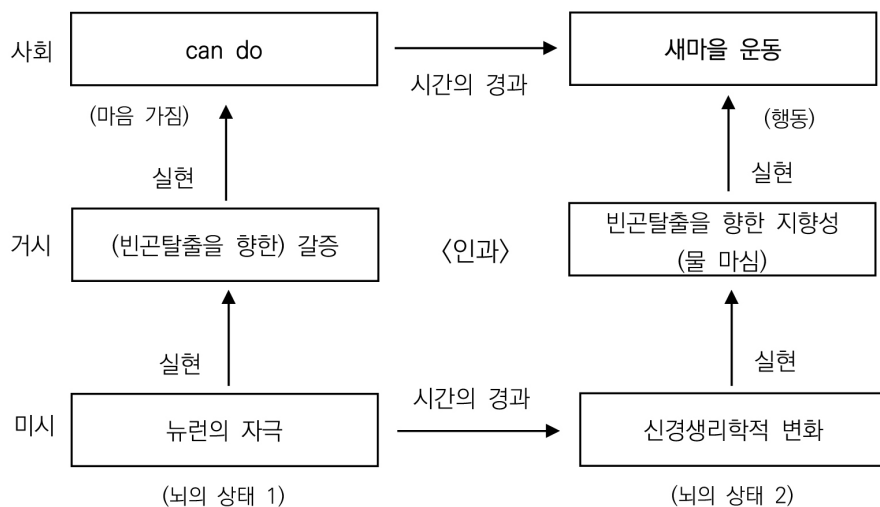
모델링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표층에서 보면 욕망의 억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완전히 잠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욕망의 억압이 개인(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침잠(沈潛)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동기도 부여할 수 없었다(술, 도박 등의 단어 참조). 즉 집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문법은 욕망의 잠재화였다. 달리 말해서 체념이 지배하는 숙명적 세계관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이 필요한 상태였다. 새마을운동이란 그 본질에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치의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가 있다. 즉 동기부여 받은 개인이 욕망이 현재화(懸在化)되어 ‘잘 살아보세’이라는 구호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 집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문법은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즉 발전적 세계관이었다. 이를 나타낸 것이 아래 <표 8>이다.

<표 8> 세계관의 전환

표층구조	가난과 체념, 전래답습	동기의 부여	소득향상, 생활세계 개선
매개변인	 기대치가 없어서 실현(동기화)되지 못함		 기대치로 인한 실현(동기화)
심층구조	욕망의 억제	새마을운동 (잘 살아 보세: 의식의 개혁)	욕망의 현재화 가능
세계관	숙명적 세계관		발전적 세계관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보자는 의식을 주입하여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가? <그림 7>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과학적 측면의 인과 관계는 뉴런의 자극에 기초하여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전자는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후자는 물 마시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 짜임새(mechanism)를 사회적 차원으로 옮겨보면, 빈곤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빈곤탈출을 향한 의식을 생성시키게 된다. 그것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can-doism)을 낳고 빈곤에 대한 갈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새마을운동의 의의이다. 이 논리는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미시적 법칙과 거시적 법칙이 관계 맺도록 할 수 있다(이광석, 2015). <그림 7>을 재구성하여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9>이다.

<그림 9> 새마을운동의 인과의 의미



즉 새마을운동의 공헌은 앞서 기술한 대로 욕망의 억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공동체 속에 완전히 잠재되어 있어서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통한 ‘잘 살아보세’라는 동기부여였다. 그것이 기대치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으로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하면서, 나아가 그 위로 전환되는 과정, 즉 노력하는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고, 공동체 속에서의 경쟁이나 상향의식을 이끌어 내었다.

V. 결론

행정학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현상이고, 행정현상은 행정학적 사실에 기초한다. 행정학적 사실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는 행태, 의식 및 무의식으로 구성된다. 지난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도 행태만을 다루는 행태주의 접근법이 과학화에 앞서 갔다. 그러나 그 한계를 노정하였고 이제는 다른 접근법에 기초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즉 의식을 다루는 현상학을 비롯하여 다른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심층이나 무의식에 입각한 연구방법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구조주의가 과학적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 의식을 산출해 내는 구조, 즉 심층구조(무의식)를 연구하는 흐름인 구조주의 접근방법이 행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 이 글은 주목하였다.

구조주의 접근방법은 어떤 대상들 가운데에 내재하고 있는 관계의 체계를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조화(調和)에 대한 탐구이다. 즉 다양한 현상 속에서 그 다양성의 배후에 있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이 관계의 체계를 하나의 언어로 환원시켜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형·생성 모델을 분석의 틀로 이용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구조란 두 개 수준의 구조적 규칙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의식되는 표면적 구조인 표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정한 행동이나 의식을 생산하고 그 성격 한정하는 드러나지 않는 심층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장치가 매개변인이다.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술을 언표(言表)로 하여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참뜻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침예한 대립을 불러 오기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동의할 수 있는 자료인 성공회대 자료로서 분석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방법을 활용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의식구조를 파악하였는데,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욕망의 억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완전히 잠재되어 있었다. 그 욕망의 억압이 개인(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침잠(沈潛)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동기도 부여할 수 없었다. 달리 말해서 체념이 지배하는 숙명적 세계관이었다. 이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였다. 즉 동기부여 받은 개인의 욕망이 현재화(懸在化)되어 ‘잘 살아보세’이라는 구호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 집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문법은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즉 숙명적 세계관에서 발전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었다.

행정사(行政史)의 역할이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반성을 통해,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론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식을 다루는 현상학적 접근이나 해석학적 접근, 또 심층이나 무의식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주의 접근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 글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명윤. (2007a), “츄스키 언어학의 현상학적 해석”, 「생성문법연구」 17(1) : 47-68.
- _____. (2007b), “츄스키의 언어관을 다시 생각하며: 그 철학적 비판”, 「인문언어」 19 : 213-231.
- 강신태. (1981),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개정판 2002).
- 곽호완·박창수·이태영·김문수. (2004),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금종우·전남석(공역). (1981), 「지배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 김경동. (1981), “오늘날 사회학이론을 둘러싼 쟁점들(I)”, 「현상과 인식」 5(2) : 84-128.
- 김광웅. (1983), 「행정과학 서설」, 서울: 박영사.
- 김동윤. (2009), “구조주의 서사학과 현대 해석학의 변증법적 만남 가능성 연구: 폴 리쾨르의 텍스트 서사 이론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7 : 189-214.
- 김선하. (2004), “새로운 과학문화를 위한 해석학적 모색: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철학논총」 38(4) : 165-183.
- 김옥동. (1997),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 김응중. (2006),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서울: 살림.
- 김형효. (2008),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자료 편」, 서울: 내무부.
- 박동서. (2006),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 박병철. (2014),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서울: 필로소픽.
- 박순영. (2012), “사회과학방법론의 철학적 근거: 사회과학적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행정언어와 질적 연구」 3(1) : 1-20.
- 박옥출. (1977), 「슬픈 열대」, 해제·번역(박옥출), 서울: 삼성출판사.
- 박형준. (1992), 안토니 기든즈의 구조화이론과 근대성, 「한국사회학」 26 : 167-186.
- 신인철. (2009), 옮긴이 해제, 신인철 (번역) 「성서의 구조인류학」, 서울: 한길사.
- 신충식·이광석·오수길·박소담. (2010), “생활세계 관점으로 본 맞춤형 경찰복지: 경찰업무 특수성에 따른 복지의 차별화”, 「한국행정학보」 44(3) : 115-140.
- 오교성. (2000). 의식의 흐름 기법 연구: To the Lighthouse를 중심으로, 「군장대학 논문집」 7 : 287-305.
- 오용득. (2013).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의 통약 불가능한 대화의 실질적 의미, 「서강인

- 문논총」 36 : 31-63.
- 우치다 다즈루(内田 樹), (2002). 「寝ながら學べる構造主義」, 이정덕 (옮김)(2011)「푸코, 바르트, 레비 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교양인을 위한 구조주의 강의」, 서울: 갈라파고스.
- 유민봉, (2012). 「한국행정학」(제4판·제5판 2015), 서울: 박영사.
- 윤광호, (2002).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인과성이 가지는 의미”, 「철학논총」 27 : 173-190.
- 이광석, (2014).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48(3) : 147-174.
- _____, (2015). “행정학에서의 질적 평가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2) : 373-407.
- 이광석·문유석. (2016), “행정학에서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대립과 대립 넘어서기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2) : 93-121.
- 이광석·권기석. (2016), “행정학에서의 주관주의에 관한 연구: 행정학의 풍요로움은 새로운 방법론 논쟁에서부터”, 「한국행정학보」 50(5) : 51-85.
- 이규태. (1985),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이규호. (2005a), 「해석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 _____. (2005b), 「언어철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이승중. (1999), 대칭적 전체론을 위하여, 한국분석철학회 (편) 「언어·표상·세계」, 서울: 철학과현실사.
- 이영철. (2016),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언어에 대한 하나의 투쟁」, 서울: 책세상.
- 이정락. (2017), 「새마을운동 관련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 및 함의: 1972년-2012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배영남. (1990), 「언어학사전」, 서울: 박영사.
- 이정민·이병근·이명현. (1977),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 정해창. (1987), 「현대영미철학」, 편역 정해창, 서울: 대한교과서(주).
- 최외출. (2016),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 81-100.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 홍성욱. (2005), “토마스 쿤의 역사학, 철학, 그리고 과학”, 『서양사연구』 33 : 139-175.
- Althusser, Louis. (1976), *Positions 1964-1975*, Editions Sociales, 김동수 (옮김) (1992)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솔.
- Braudel, Fernand. (1986),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ecle*, Paris: Armand Colin Editeur, 주경철 (옮김) (19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서울: 까치.
- Brown, Harold I. (1977), *Perception, Theory and Commitment: The New Philosophy of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신중섭 (옮김) (1987)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철학과 새로운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Carr, E. (1982), *What is History?* London: Macmilan, 김택현 (옮김) (2016)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 Caws, Peter. (1988), *Structuralism: The Art of the Intelligible*,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 Chomsky, Noam. (1957), *Syntactic Structure*, Hague: Mouton.
- Coser, Louis. (1971),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신용하·박명규 (옮김) (1982) 「사회사상사」, 서울: 일지사.
- Dosse, François. (1997), *History of Structuralism: The Rising Sign* (vol. 1),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이봉지·송기정 외 (옮김) (1998) 「구조주의의 역사」, 서울: 동문선.
- Fann, K. T. (1969), *Wittgenstein's Conception of Philoso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황경식·이운형 (옮김) (1989),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광사.
- Fleck, Ludwik. (1979), *Genesis and Development of a Scientific Fac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ner, Roberta. (1996), *Contemporary Movements and Ideologies*, London: McGraw-Hill.
- Giddens, Anthony. (1993),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김미숙 외 (옮김) (1994)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Glucksman, Mariam. (1974),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A*

- comparison of the Theories of Claude Levi-Strauss and Louis Althusser*, London: RKP, 정수복 (옮김) (1983), 「구조주의와 현대마르크시즘」, 서울: 한울.
- Gurwitsch, Aron. (1964), *The Field of Consciousnes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최경호 (옮김)(1994)「의식의 장: 형태의 지각에 뿌리를 둔 선험적 현상학」, 서울: 인간사랑.
- Halfpenny, Peter. (1982), *Positivism and Sociology: Explaining Social Lif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Harland, Richard. (1988), *Superstructuralism: The Philosophy of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London: Routledge.
- Henry, Nicholas. (1980),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ertzberg, Lars. (2010), Language-games and Private language, in Kelly D. Jolley (ed.) (2010) *Wittgenstein: Key Concepts*, Durham: Acumen.
- Hoffman, Frederick J. (1959), *Freudianism and the Literary Mind*, New York: Grove Press Inc.
- Humphrey, Robert. (1954), *Stream of Consciousness in the modern Nove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천승걸 (옮김) (1984). 「현대소설과 의식의 흐름」,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 Itkonen, Esa. (1975), Transformational Grammar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in E. F. K. Koerner (ed.) *The Transformational-Generative Paradigm and Modern Linguistic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B. V.
- Johnson, Benton. (1975), *Functionalism in Modern Sociology: Understanding Talcott Parsons*, Morristown, New Jersey: Silver Burdett Company, 박영신 (옮김)(1980), 「사회과학의 구조기능주의: 탈콧트 파아슨즈 이론의 이해」, 서울: 학문과 사상사.
- Kemeny, John G. (1959), *A Philosopher Looks at Science*, London: D. Van Nostrand Company.
- Kishik, David. (2008), *Wittgenstein's Form of Life*, London: Continuum.
-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조형 (옮김)(1981),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_____. (1979), Foreword, in Ludwik Fleck, *Genesis and Development of a*

- Scientific Fac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rzweil, Edith. (1980), *The Age of Structuralism: Levi-Strauss to Foucaul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sh, Scott. (1991), *Post-Structuralist and Post-Modernist Sociology*, Aldershot: Edward Elgar.
- Leach, Edmund. (1983), *Structuralist Interpretations of Biblical My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인철 (옮김) (2009), 「성서의 구조인류학」, 서울: 한길사.
- Lichte, John. (1995), *Fifty Key Contemporary Thinkers : from Structuralism to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 광동훈·김시무 (옮김) (1995), 「현대사상가 50」, 서울: 현실문화연구.
- Levi-Strauss, Claude.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Claire Jacobson & Brooke Grundfest Schoepf (t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 Long, Roderick. (2010), Wittgenstein on rule-following, in Kelly D. Jolley (ed.)(2010) *Wittgenstein: Key Concepts*, Durham: Acumen.
- Magee, Bryan. (1978), *Some Creators of Contemporary of Philosophy: Men of Ideas*, London: BBC, 이명현 (외) (옮김) (1985), 「현대철학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서울: 심설당.
- Mommsen, Wolfgang J. (1974), *The Age of Bureaucracy: Perspectives on the Political Sociology of Max Weber*, Oxford: Basil Blackwell.
- Myers, Gerald E. (1986), *William James: his Life and Though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ngaro, Edoardo. (2017), *Philosoph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 Introduction*, Cheltenham: Edward Elgar.
- Polkinghorne, Donal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Systems of Inqui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opper, Karl. (1972),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이한구 (옮김) (2012) 「추측과 논박」, 서울: 민음사.
- Quine, W. V. (1961),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허라금 (옮김)(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 Salmon, Wesley C. (1990),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ank, Roger C. (1999), *Dynamic Memory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현정 (옮김) (2002) 「역동적 기억: 학습과 교육에 주는 함의」, 서울: 시그마프레스.
- Schutz, Alfred. (1941), William James' Concept of the Stream of Thought Phenomenologically Interprete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1, No. 4), pp. 442-452.
- Seung, T. K. (1982),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나경수 (옮김) (2009) 「구조주의와 해석학」, 광주: 전남대 출판부.
- Sturrock, John (ed.) (1979), *Structuralism and Since: from Levi-Strauss to Derrid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eds.), Ephraim Fischhoff and others (trans.), New York: Bedminster Press, 금종우·전남석 (옮김)(2006), 「지배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 Winch, Peter. (1958),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김기현 (옮김) (1985) 「사회과학과 철학」, 서울: 서광사.
-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 London: Blackwell Publishing Co. 이영철(옮김)(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 _____.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이영철(옮김) (2006), 「논리철학논고」, 서울: 책세상.
- Zaner, Richard M. and Tristram H. Engelhardt, Jr. (1973). *The Structures of the Life-Worl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木田 元・野家 啓一・村田 純一・鷺田 清一 (1994) 「현상학사전」, 이신철 (옮김) (2011). 서울: 도서출판 b.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ist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Saemaul Leaders in 1970s and its Transformation

Lee Kwang-seok* & Lee Jeong-rag**

This paper assumes that there are many ways to enrich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through a variety of methodologies. One of them this paper puts emphasis is structuralism. It can be summarized that structuralism is the belief that phenomena of human life are not intelligible except through their interrelations. These relations constitute a structure, and behind local variations in the surface phenomena there are constant laws of abstract culture. As a methodology that elements of human culture must be understood by way of their relationship to a larger, overarching system or structure, structural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works to uncover the structures that underlie all the things that humans or human groups do, think, perceive, and feel.

Based on the above-mention assumption, this paper tries to uncover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Saemaul leaders in 1970s and its transformation. The basic material which comes from Sungkonghoe University is adopted in this paper, because the material from the University can be proved objectiv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onwards) is used as the technique for the analysis.

The point that this paper puts emphasis on is that when structural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can be enriched.

【Key Words】 Structuralism,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Deep structure and Surface structure, Parameter and Transformation, Saemaul Movement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Yeungnam University

The date of submission(receipt) : Nov 15th

The date of evaluation(modification) : Dec 05th

The date of confirmation(publication) : Dec 10th